



진안경찰, 현충일 맞아 충훈탑 참배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지난 5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진안군 백운면 소재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주현오 서장을 비롯해 총 7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화·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목념 순으로 진행됐다.

주현오 서장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뇌를 기리는 중요한 행사였다."며 "이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안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모범운전자협의회, 효도관광 실시

진안군 모범운전자협의회(회장 강성만)는 지난 8일 관내 어르신 80명과 함께 순천정원박람회와 여수 일원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효도관광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짐짓증단 되었다가 지난해부터 5개~6개 월연 어르신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안읍 상전, 백운, 성수, 미령 주민들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협의회 회원 20여명과 대형 전세버스 3대로 순천정원박람회와 여수 일원을 방문해 단소도 나누고 각종 꽃이 가득한 박람회장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전춘성 군수는 "나들이가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시는 모범운전자협의회 회장 및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6월 9일의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공설시장에서 구강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로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라는 슬로건으로, 구강보건 관련 문구가 들어간 팬넬 및 구강위생 용품 등을 전시하고, 지역상가 및 거리에서 1:1 구강건강 홍보 구강보건 관련 리플렛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한다. 또한 치과공종보건의의 구강상담 및 검진도 받아 볼 수 있으며 올바른 치술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남원=길기두 기자

순창동계피출소·작성면사무소, 수난 인전 장비 점검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동계피출소는 장마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 적성면 구미교 삼거리와 섬진강마실휴양지박사시설관리소 등 악사사고 위험 장소에 대해 적성면사무소와 합동으로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줄 등 수난 인전 장비를 특별 점검했다.

동계피출소에서는 물에 물기를 찾는 인파가 특히 증가함으로 예상 적성면사무소와 합동으로 구조장비를 점검하여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어 낡고 헤어진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장비 보관함을 제작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섬진강과 오수천 일대 위험도가 높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탄력순찰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미흡한 수난 장비는 해당 관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정여행과 청년의 꿈' 남도길 도보행진

전북과학대, 아동권리 증진 위한 공정여행 실천

전북과학대학교(총장 이용준) 복지계열에서는 지난 2일 ~3일 '공정여행과 청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6회 남도길 도보행진을 시행했다.

이번 도보행진의 주요 목적은 아동권리증진과 학대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동시에 지역사문화를 도보로 탐방하는 행사이다. 참여자로는 106명의 학생들과 시민단체 30여명이 시전 아동교육을 시작으로 장성을 경유하여 담양까지 도보행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정읍시청 광장과 정읍역 광장 등 시내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재학생들이 합동으로 선보인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 당을 비롯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거리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도보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6회째를 맞이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행사의 규모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정읍시 보호관찰소 직원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시민연대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보행진의 준비를 담당한 복지계열 2학년 이형인 학



회장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복지사들도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공정여행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총괄지도를 맡은 송운용 교수(복지계열)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보행진 행사가 청년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적 노력으로 전북과학대학교를 넘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6회 정읍시장기 전북권 야구대회 성료

제16회 정읍시장기 전북권야구대회가 지난 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1일부터 4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영파야구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4일에는 순창 이레스야구단과 전주 캠피아야구단, 정읍 블레이글러스야구단과 전주 캠피아야구단이 준결승전을 치러 캠피아야구단과 파이어밸트야구단이 결승에 올랐다.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결승전에서는 양 팀이 막상막하의 실력을 뽐내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를 펼친 끝에 캠피아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시상으로는 캠피아야구단의 채국병 감독이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선수상과 우수선수상에는 각각 박성민, 김선일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야구협회 관계자는 "전북권에서 야구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면밀히 마다 않고 찾아주신 야구동호인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항상 대회가 더 빛나도록 이집없는 후원을 해주는 정읍시와 정읍시체육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에는 리틀야구단, 이평중학교, 인상고등학교에



는 야구부가 있고 또 많은 사회인 야구단이 폭넓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인적자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대회의 도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정규 야구장이 절실히"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 안천중 총동문회·한마음대회 성료

제11회 진안군 안천중학교 총동문회(회장 박천윤)가 지난 3일 안천면 소공원에서 박원순 안천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천 초·중·고등학교 18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한마음대회에서는 기수별 장기자랑 등 흥겨운 시간을 가지면서 동문 간 친목을 더욱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한편 안천중 총동문회에서는 지난 2019년에 장학회(위원장 한희)를 구성하여 장학기금 1억원을 목표로 모금 중에 있으며 현재 8,000여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기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된 장학금은 안천중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역의 미래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정희 안천면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전에 더욱 앞장서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께 봉사하며,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천중학교 총동문회는 2011년도에 첫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지 올해로 13년째 되는 해이다. 6대 회장으로 추원호 회장이 선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 멘토단 위촉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3일 진안군 게스트하우스에서 초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신규 멘토 3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멘토들을 운영하게 돼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기본인식 제고,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 작목선택, 영농기술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날 위촉식이 끝난 이후에는 멘토들의 상반기 활동에 대

한 발표를 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서로 공유했다.

군 계약자는 "귀농귀촌 멘토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귀농 새내기 귀농인에게 숙련된 재배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귀농·귀촌 멘토서비스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433-0245)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금산면 지사협, 착한가게 26호점 탄생

김제시 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서효연, 민간위원장 장영종)는 지난 2일 카페 김정선베이커리(대표 김정선)를 찾아 착한가게 26호점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을 후원하며, 모아진 후원금은 공적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와 권리지원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문화에 동참하여 지역단체, 상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선 베이커리 대표 김정선 씨는 "금산면에 자리잡은 이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베이커리 카페로 자리 잡았다. 조금이나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진안 성수면서 저장강박증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진안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용주)는 지난 5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과 함께 저장강박증(각종 쓰레기)을 집마다 쌓아놓는 병)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으로 수년간 옷, 식자재, 고철 등을 수집해 쓰레기를 쌓아두어 집안 내에 악취 뿐만 아니라 쥐가 들끓고 난방도 되지 않아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 원래도 없이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성수면 행정복지팀은 어르신과 자녀들을 설득한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정하고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5월 입주를 완료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3톤 분량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좋은이웃들의 후원을 받아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이불을 지원했고,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는 냉장고 등 생활필수 및 가전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상태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준비 박차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36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진압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치러지고 있으며 36회 대회는 중앙소방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참가 대원은 남 5명, 여 1명이 4인조별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종목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각자 임무를 맡은 진압대원이 조를 이뤄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압작전 전개와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선보이게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중앙유치원 119청소년단 입단식

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지난 5일 김제중앙유치원 119 청소년단에 대한 입단식 및 소방안전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모집된 김제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 5개 대대중한 개인 김제중앙유치원은 7세 원아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도 김제소방서 소년단으로 입단하여 현재까지 활동중에 있다.

이번 입단식은 유치원 화재대피 훈련과 병행해 실시됐으며, 화재대피 훈련에는 유치원 원생 6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 및 입단식을 통해 △화재시 대피요령 습득 및 연기소화기 사용 체험 △입단식 선서 및 선언문 낭독을 통한 참여의식 함양 △단체시진촬영 및 기념품 증정 등을 진행했다.

6월초에 실시되는 한 개 대대의 입단식을 끝으로 이번년도 청소년단에 대한 입단식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